



이탈리아 현대 미술의 날
2019년 10월 14일, 15.00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 (B1)

주한이탈리아문화원은 매년 10월에 이탈리아 현대 미술관 협회인 AMACI가 이탈리아 현대미술에 대한 지식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하는 ‘이탈리아 현대 미술의 날’ 행사에 올해 참여한다.

서울시립미술관과 협력하여 주한이탈리아문화원은 다음 주제로 강연회를 기획하였다. ‘이탈리아 현대 미술: 아르테 포베라(Arte Povera)부터 오늘날까지’, 강연 발표자는 파비오 카발루치(Fabio Cavallucci)이고 행사는 2019년 10월 14일 오후 3시,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 (B1)에서 진행된다.

현대미술 전문가이자 전시 큐레이터인 파비오 카발루치는 현재 심천과 홍콩 도시건축 비엔날레 수석 큐레이터로 활동 중이다. 이전에는 트렌토 시립 현대미술관 (이탈리아), 바르샤바 Ujazdowski 현대미술센터(폴란드), 프라토 루이지 페치 현대미술관센터(이탈리아)의 관장직을 지냈다. Manifesta 7 국제대회 설립자이자 코디네이터로 활동을 하였고 제 14회 카라라 국제 조각 비엔날레 예술감독을 맡았다.

이번 강연회에서 파비오 카발루치는 미켈란젤로 피스토레토(Michelangelo Pistoletto), 알리기에로 보에티(Alighiero Boetti), 마리오 메르츠(Mario Merz), 프란체스코 클레멘테(Francesco Clemente), 마우리치오 카테란(Maurizio Cattelan) 등 1960년대 말부터 오늘날까지 이탈리아 미술계를 대표하는 거장들의 작품을 소개하면서 이 시기 이탈리아의 주요 미술운동을 중점적으로 강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탈리아 예술만의 특성과 다양한 국제운동에 연계된 이탈리아 예술가들의 공통점을 상세하게 소개할 것이다.

아울러 카발루치는 10월 15일 화요일, 서울대학교 강당에서 서울 대학교 미술 대학 미술경영 과정을 전공중인 학생들 위한 특강도 진행할 예정이다.